

아파트 30층·주상복합 40층...광주시, 층수제한 다시 손본다

일률적 층수 규제 아닌 도시경쟁력 고려 탄력적 규정 적용 1년여 만에 바뀌는 제한 규정으로 행정 신뢰성 저하 우려도

광주시가 최대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건물 40층 등 획일적으로 적용중인 건축물 층수 제한(높이관리) 규정을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도시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현 높이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누려야 할 무등산 조망권역 등에 대해서는 경관보존 조치를 더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바뀌는 층수제한 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기존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층수를 낮춰야 했던 신규 아파트 업체와 입주자의 형평성 제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위치의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높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경관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광주 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께 중간용역결과가 나온다.

광주시는 현재 각종 경관 요소 등에 대한 기초 조사와 경관관리의 중요 요소인 조망점 설정 등도 검토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중간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관계획(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1월께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고층 아파트 난립에 따른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비중과 무등산 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겠다며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든 뒤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당시 신축 예정이었던 서구 쌍촌동 호남대 부지 내 아파트와 첨단 일부 아파트 등이 해당 원칙을 적용받아 애초 계획보다 낮은 층수로 재설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시경관계획 마련을 위해 구성된 시민참여단과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 부지별로 개발 0m나 200m 부지 등 입지여건이 천차만별인데도 층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고층 랜드마크 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그동안 층수제한 조치 정책으로 일부 도시경관을 지켜내는 성과를 냈지만, 시

민참여단 의견과 입지 여건, 무등산 조망, 공공성, 도시 경쟁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층수제한 규정을 재설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검토 중'을 전제로 큰 틀의 새로운 경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시는 일단 시민참여단 등이 요구한 지하철 2호선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각종 개발사업, 산업여건 변화 등 도시 변화에 따른 탄력적 층수 제한 운영과 고층 광주형 랜드마크 형성 의견 등을 받아들여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높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보전과 개발이 상충하는 경관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만 전제조건으로 주요 관문지역 및 무등산 등 조망경관 보전·관리가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망경관을 해치는 위해경관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제시, 조망점 추가 설정 등을 통해 조망경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등산 조망권 등과 관련이 없는 도심 외곽 등 지역에서는 30~4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고, 무등산 인근이더라도 랜드마크 조성 등 개발조건을 충족하면, 이른바 '평균 층수제' 등을 도입해 층 수내에서 단지별로 고층과 저층 아파트를 섞어 지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30층 짜리 7개동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총 210층 내에서 30층이 넘는 고층 단지를 짓는 대신 나머지 단지는 저층으로 짓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윤섭 광주시장은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건 개념은 아니고 어떤 곳은 지금보다 강화할 수도, 어떤 곳은 유연하게 완화할 수도 있다"면서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만들어 도시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단호하게 차단하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4일 오전 광주 북구 상사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5~11세 31일부터 코로나 백신접종 24일부터 사전예약... 오미크론 이변주 정점, 검사·확진 체계 개편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전해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집중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전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 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며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

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또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2차장은 "오미크론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첫 주 19만 명, 지난주 2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 중점점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주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1천32명 정도로 전주보다 35.7%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8% 수준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확진자 전담과 현 방역상황에 맞춰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다.

/연합뉴스

남도장터,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로 우뚝 2년 연속 대상...농어가 매출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인정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가 '2022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이어 '2022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차지하며,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최고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2022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대상 조사를 거쳐 전문가의 기업평가로 선정하는 상이다.

남도장터는 코로나19로 소비체계가 현실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사회 추세와 고품격 온라인 소비 가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밥 수요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해 제품 만족

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인 552억 원을 기록, 전년 매출액의 69%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입점 업체 수 1663곳, 입점 상품 수 2만6171개, 회원 수 33만3686명에 달해 농어가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도장터가 전국 최고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애용한 고객들께 감사하다"며 "올해는 남도장터를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법인화해 소비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유통경로 다양화와 품질 향상, 체계적 고객관리 등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역문화단체 '전당재단 경영진 임명과정 해명 미흡' 이의신청

지역 80여개 시민사회문화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착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상임대표 박종화)는 14일 전당재단 경영진 임명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비공개 결정된 문제부 답변에 대해 최근 이의 신청을 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문제부의 답변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곡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인사파행으로 논란을 자초한 문제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당재단 사장 임명 철회를 통해 결사해지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23일 문제부를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서 부분 공개 답변을 회신 받았

다. 이에 앞서 시민연대는 '문제부가 전당재단 경영진 임명 과정에서 협의와 추천을 받았다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계 인사 명단', '아특별 부칙 제2조에 근거한 문화전당재단 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할 설립추진단 명단', '설립추진단 회의록 및 창립총회 의사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부는 답변서에서 경영진 임명 과정에서 협의와 추천을 받았다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계 명단은 인사관리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설립추진단 회의록 및 창립총회 의사록 일체 중 회의의 또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비공개했다. 반면 설립추진단 명단 및 직책과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입아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금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화정2차 골드클래스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 공고문

화정2차 골드클래스 공식홈페이지(http://www.hj2-goldclass.com) 내 분양안내(입주자 모집공고)란에 첨부된 모집공고(전문)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4호에 의거 내용의 수정 및 추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등” 중

문구 삭제 부분

- ※ 기존 공고문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등 - 발코니확장의 3)항 발코니확장 관련 유의 사항 (2번제출)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형(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구 삭제.
- ※ 기존 공고문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등 - 추가선택품목의 5)항 추가선택품목 유의 사항 (1번제출)
 - 발코니 확장 계약시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가능하며, 기본형(비확장세대)세대의 경우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문구 삭제.

문구 추가 부분

- ※ 현 공고문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등 - 추가 선택품목의 1)항 시스템에어컨(추가 선택품목 표1)
 - 1) 시스템 에어컨 표상의 비고란 - 발코니 비확장시 선택 가능 문구 추가.
- ※ 현 공고문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등 - 추가 선택품목의 2)항 가전제품(추가선택 품목 표2)
 - 2) 가전제품(일체형비데, 전기쿠팡, 냉장고, 식기세척기) 표상의 비고란 - 발코니 비확장시 선택 가능 문구 추가.
- ※ 현 공고문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등 - 추가 선택품목의 3)항(추가선택품목 표3), 4)항(추가선택품목 표4), 5)항(추가선택품목 표5)
 - 기존 3) 가전제품을 3) 팬트리, 4) 가구, 5) 가전제품으로 세분화하였으며 4) 가구(추가 선택품목 표4) 중 신발장은 발코니 미확장세대도 선택 가능하도록 문구 추가.
- ※ 현 공고문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등 - 추가선택품목의 5)항 가전제품(추가선택 품목 표5)
 - 5) 가전제품 중 비데타입 84A형과 84B형으로 분리하여 선택가능하도록 하였음.
- ※ 현 공고문 (6.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등 - 추가 선택품목의 7)항 추가 선택품목 유의 사항 문구 추가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확장시와 발코니 미 확장시 내부 규격의 차이에 선택 품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추가선택품목 일부품목에 한해 설치 공간 미확보에 따라 추가선택 계약에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시스템에어컨, 전기쿠팡, 일체형비데, 신발장 중 설치 희망하는 품목 계약이 가능합니다.)
 - 일부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이 되어야 설치가능 하므로 발코니 미 확장은 선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시스템에어컨, 전기쿠팡, 일체형비데, 냉장고, 식기세척기, 중문, 슬라이딩문,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비데타입, 이트릴(타일), 이트릴(간접등), 세라믹타일, 주방 팬트리 등 설치를 희망하는 품목 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입아,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타라브즈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상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개발부지와 사택면 조경수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파.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7중 1천5백여주 조성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정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9만원
- 4. 입아내 휴양림 30여년상 펜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번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통행시간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사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상성홀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원주 010-3454-2389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태반의 행안과 권속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가 상법 제65조에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7기(유급)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 집 일 시 : 2022년 03월 30일 수요일 오후 02시 00분
- 소 집 장 소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의로동길 91, 2F (대강당)
- 회의 목적사항
 - 1) 감사보고 2) 영입보고
- 부의의결
 - 제1호 의안 : 제7기(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박상현)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유우현)
- 기타사항
회사의 추진 사항 및 비전 발표 (발표자 : 박남팔 대표이사)
-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관련 사항
관련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명부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기나, 직접만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가. 직접행사 : 주총참석증(또는 소집통지서), 신분증
 - 나. 대리행사 : 주총참석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서함장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주식회사 골드온 대표이사 박남팔 직인함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자대상공고)

주식회사 가보 (이하 '가보')와 바이엔지 주식회사 (이하 '엔지')는 2022년 03월 08일 2회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엔지"의 전가공사업 영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가보"와 분할합병하고 "엔지"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가보"에게 양도 하는 결의사항을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재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를 분할합병하여 양도하는 결의사항은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통 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3월 15일
"가보" 주식회사 대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28, 3층(대산빌딩)
대표이사 김 진 희
"엔지" 바이엔지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24번길 43, 20호(월평동)
대표이사 정 희 자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동지와의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계전선
광주일보 문화예술계전선
광주일보 문화예술계전선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